



## 이물저감화 캠페인 실시

기획조사팀

사단법인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는 지난 9월 16일, 17일 양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공동으로 깨끗한 빈병 사용을 위한 '빈병에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캠페인을 전국 5대 도시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보호를 위해 재사용 하고 있는 소주, 맥주병이 소비단계에서 소비자들 이 빈병에 넣는 이쑤시개, 담배꽂초 등으로 인하여 재사용 후 최종 제품에서 이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빈병의 깨끗한 재사용에 소비자 동참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9월 16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에서 캠페인이 진행되었으며 17일에는 대전과 광주에서 진행되었다.

서울 강남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한국주류산업협회 권기룡 회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기획단 박희옥 단장이 참석하였으며 롯데칠성음료(주), 오비맥주(주), 하이트진로(주) 직원 약 60여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약 20여명 등 총 80여명이 참석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하며 홍보물로 제작된 물티슈를 나눠 주었다.

서울 홍보캠페인



부산에서는 (주)무학 직원들과 부산지방식약청 직원 약 40여명이 참석하여 서면 메가박스 일대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대구에서는 (주)금복주 직원과 대구지방식약청 직원 약 40여명이 동성로 대구백화점 인근에서 시민들에게 깨끗한 빈병 사용을 당부하며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부산 홍보캠페인



대구 홍보캠페인



17일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대전 타임로 인근에서 (주)티맥키스컴퍼니 직원과 대전지방식약청 직원 약 4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같은 시간 광주 충장로에서는 보해양조(주)와 오비맥주(주), 광주지방식약청 직원 총 8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홍보 캠페인을 마쳤다.

광주 홍보캠페인



대전 홍보캠페인



이번 홍보캠페인을 위하여 총 3만부의 포스터가 제작되었으며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전국 각 지부를 통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전국 음식점 등에 배포, 부착되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빈병 활용에 대한 소비자 동참 활성화로 주류 중 이물 발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간담회, 민원설명회 등을 통해 이물 저감화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